東亞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合十面
發行所 東亞日報社
電話 光化門 一九〇〇

社說

日英親善論의 擡頭
英國政府의 遠交近攻策

一

[illegible]

二

[illegible]

三

그러면 이제 다시금 英國政府가 日本政府와 接近論을 國議하려고 하는것은 무슨까닭일까? [illegible]

健康上의 理由로 汪氏遂辭表提出
辭職實現이면 日中關係逆轉
中國政局危機에 直面

【電通南京九日發】 [illegible]

汪氏不飜意면 內閣總辭職
孔祥熙黃紹雄兩氏談

[illegible]

英特使와의 懇談
外務當局否定

[illegible]

金·封御下賜
朝鮮水害에

【電通東京電話】 [illegible]

北平印刷局閉鎖
職工千七百不穩

【北平九日發聯合】 [illegible]

에國도軍隊動員
獨逸에서까스마스크도輸入
兵力實數約七十五萬

【아디스아베바八日發電】 [illegible]

丹市議長과 波外相會見
關稅問題協議

【와르소八日發聯合】 [illegible]

北中治安維持에 日本과軍事同盟
王整務整理委員長代理提唱
各巨頭도大體贊成?

【北平八日發電】 [illegible]

年產一萬臺를目標 自動車工業統制
商相、九日閣議에諮問結果
來議會에法案提出

【東京電話聯合】 [illegible]

自動車工業法要項

【東京電話聯合】 九日의閣議에서 決定한自動車工業法의 要項은 如左

▲自動車工業法要項

一、大衆車의 構成 又는主要部分品製造事業은 이를 許可制度로 [illegible]

二、前項의 許可를받을수있는者는 [illegible]

三、第一項의 許可를 받음 [illegible]

四、지금 存立하 [illegible]

政府所有古米 四十萬石賣却
八年產日本內地米

【電通東京電話】 農林省發表 [illegible]

一、賣却米의 種類 昭和八年產日本內地米 [illegible]

一、賣却數量 約四十萬石

一、受渡期間 [illegible]

消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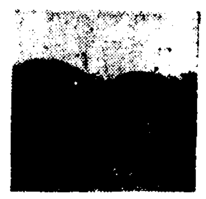
▲宇垣總督 [illegible]

夕刊後市況

◎英陸軍의大觀兵式 【倫敦發聯合】 英國皇帝陛下 即位二十五周年記念祝賀에 去七月十三日 [illegible] 世陛下御親閱下에 擧行된 英國陸軍의 大觀兵式 [illegible] 名의 各科部隊가 參加하였다

三、典章法度(一)

[illegible]


五陵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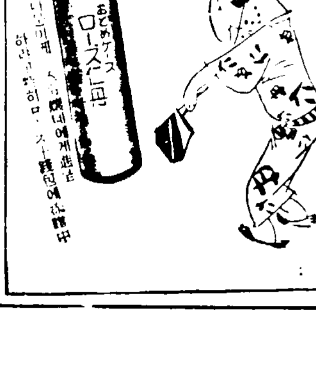
第十三、成長하는新羅 【四】
五千年間朝鮮의「얼」
鄭寅普 109

[illegible]

淋 病 新 藥
ツヨール
陸軍藥局方收載
淋菌을殺滅하고尿를淸澄케함、持續하며 하시나도胃腸障害又는腎臟刺戟을不起함
製造發賣元 木才製藥合資會社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二丁目 電話日本橋三一七番
(各名藥店ニア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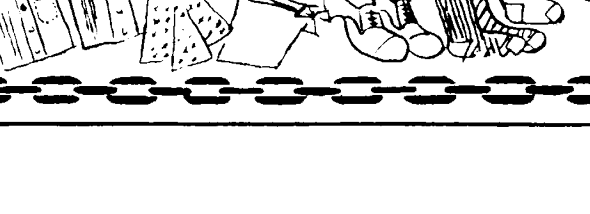
救急常備藥 活命水 同和藥房

ㅇ대ㅇ 알멩이 グリコ의 벌려노핫네



銀粒仁丹
춤을추랴거든 몸가볍게수이라

八月十日부터 二層特賣場에서
!!夏物一掃大處分!!
前例에드믄大勇斷 一時價半額品山積
▲麻샤쓰類 ▲와이샤쓰類 ▲파나마帽子 ▲핸드백 ▲스텐쓰봉 ▲紳士淑女靴 ▲모뽀런나이샤쓰 ▲카ㅡ텐 ▲테불크로ㅡ스
▲紳士淑女夏洋服 ▲男女小學生夏服 ▲에기모기장及防水만또
十錢均一 ▲砂器접시 ▲공기 ▲유리컵
▲一圓以上에粗品進呈
◉地方注文은通信販賣部로


和信 振替京城九三六六

慘!! 空前의 大量轢死事件

昨夜、咸興郊外에서 男女十名이 轢死

◇重傷者三名도命在頃刻◇

鐵路에서 納凉타가 慘禍

【함흥지국전화】 九일오후八시三十五분경에 함흥부북부정(咸興府福富町)재一철도건널목우에 마침 더위를피하야 납양(納凉)을나왓던 수만은군중가운데서 十수명이 함흥을떠나 오로리(五老里)방면으로 가는 기동차 백十九호에치어 十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그외 四명은 중상을 당하야 김명학병원(金明學病院)에입원중 三명은 생할 방가이없고 그외 도립의원(道立醫院)과 그외 다른병원에 二三명이 수용되어 방금치료를 받고잇는 중인데 사상자의 성명은 다음과갓다.

◇死亡者九名(現場卽死)▲沙浦町三林昌玉의 三女貴培(一五)▲本町五丁目六五趙洙龍母申氏(五六)趙의 妻甥鄭興坤의 女七月女(一〇)同人子七月乞(四)▲本町五丁目一五 俞鍾益長女貞玉(一二)▲沙浦町韓氏(四三)同女後房女(一七)▲本町五丁目韓若秀(一九)▲本町五丁目劉東根長女朴乞(一二)同長男秉敏(一七)◇入院患者▲尹貞順外二名

阿鼻叫喚의 現場

暗夜、堤防우에 哭聲浪藉

큰車避타 汽動車에 遭難

전기 보도와같이 ... 에서 납량을하던 군중은 八시二十五분 전후 역시 군중이 잇으려하고 상에 와홍여를 떠난 성성행 五백三 호의 기관사가 기적을 울리며 나 려온 이것을 피하느라고 금 하 옆에잇는 성편재선로로 미하여 우으로 운 서잇는데 때마침 오로리로 가던 기동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그삽 간 삽시에 희생되엇다. 그런데 한 장은 가시아부이오 기동사로 선수 역시 군중이 잇으려하고 상을 못하까닭에 미리부터 주의를 하지못하고 급히 속력으로 운전하여 사건이 돌발되자 현장에 불려(?)군중속에 가 숨을 일흔사람들은 시체를 붙들고 통곡을하는등 아연으로 처참한 광경을 이루엇다.

二名三名이同時慘死

三家庭의 大悲劇

그중엔 시집갈 處女섞어

死者는大部分婦女兒童

별항 참사가 발생한후 조사에 판명된것은 죽은사람가운데 함흥부 본정(本町)조용수의 모친은 이 날밤에 그의 외손자 외손녀와가치 지성을 피하다가 동시에 기동사 바퀴의 이슬로되엇다. 그리고 본정유동근은 四명이 현충 자녀一명이 참사하야 죽엇고 그외 사포정 한씨는 모녀가 사시에 참사하엿는데 죽은사람가운데 성옥이라는 二十一세된 시집갈날를 앞으로 三、四일남겨 노코 그만 철로의 이슬로 되어버린 참사이다. 사고가 기차 사고인만큼 죽은 사람가운데는 대다수가 부녀와 아동이라 한다.

早今島洪水

死者二百餘

【마니라八일발연합】 비도(比島)루손도중부에 호우가 나리어 대홍수로 사자二백二명을 내엇다.

또 산복지대에 산이무너저 매몰되어 죽은자五十명에 달하엿다.

北岳山아잘잇거라!

祖宗白頭뵙고오마

弓裔故都鐵原曠野指點할제

凉味萬斛의 三防峽谷

한강(漢江)중수 廿九일밤 탄탄에 일심만 바꾸(?)... 이러케 요란스러운 송외방울소리가 서울의 심장을 서늘케 하는 그이튿날 七월廿四일오후一시、기자는 배랑을 걸머지고 백두성산(白頭聖山) 순례의 첫서름으로 광화문네거리에 나섯다. 한양(漢陽) 五백년의 무서운 역사를 등에 걸머지고 만년이 서잇는 북악(北岳)을 바라보며 산으로 가서 내 소식을 알외우 렵의 겨가 니다、내 어머니이 사고 멀리 니 —— 가 가면、그리운 그 손이 ... 얼굴 보고 자여 찬 ... 여에서 백두사가는 일행으로 행한 하는 화파다를 남기고 경성역행 전차를 탓다.

등수동이라 나려 보이는 범에 (?)는 어느 그 별도 내 들은 어듸만지 어떠 소식도 ... 상아五천년 배두성산의 그신비한 품속은 단군(檀君)、부여(扶餘)、고구려(高句麗)、발해(渤海)、김(金)、여진(女眞)、만주(滿洲)의 왕조가 영태(靈胎)된 거륙한 동방의 어머니이며 제비손과 비마음으로 달려가는 어린것들 안어주지 안으시리오.

우리일행들 실은 차는 서빙고(西氷庫)、한강리(漢江里)、왕십리(往十里)일대를 지난다. 도도한 한강의 탁랑은 부서운 소리로 흐른다. 여인 수배의 가없이 흐름에 삿기어 어범진은 집이 남엇다. 강가 면그가지간에도 한두은성인 청용보아 물은 가수된것을 짐작하겟고 선도뚝넘어 밥에도 곡식 쌓업을 응세하기위한 저 빨앗인가. 위의 남은 자리려엿으니 궁에 ...

이 ... 위아에 영기어 무엇인지 알어볼수없이 되엇으니 철도뚝넘어가지 침수되엇는것을 가히 알겟다. 비는가고 물도수나 사곳이 없는 사람만어 이언듸 저언듸으로 헤매고 잇는 양이 남의 일갓지안타가 가슴 답답하다.

의정부(議政府)지나서 부터 감자의 날이 흐리고 사가내서 지더니 비방울이 떨어진다. 번점 떠나는 나그네의 가슴이라 마음에도 검은 구름쪽이 떠돈다. ○ 차는 그대로 달려 철원(鐵原)들을지 난다. 유난스럽게 검은바위들이 뒤쳐 우둑어니 웃어 바라보는 안변 ...

하여 간하다 못하여 마시내노한 궁예의채찍에 포리를발든궁예의 왕비(王妃) —— 머리를 쫓어헤치고 찢어진 치마자락을 비 바람 날리며 미처서 울며 헤매다가 저물뿌려 에 새여 없드려지는 그럿날이 보이는듯 ——

결푸른 저바위 지나는 나그네의 가슴을 아프게한다. 석양의 사방(三防)협곡을 지날때 게곡에 가득찻든 양미(凉味) 는 말할수없는 바람에 차속에 몰려 든다.

쪼인고、저산넘어인가 부부여성으로부터 장해바다에 이르는 천리장성(千里長城)을 싸을때 어떤 농군이 만치된 안해를 두고 부역하러 떠낫다. 서로 기다린제 十七년이라 세상도변하엿겟지만 사천도 낫설지 안흔수없엇다. 부역을 끝마치고 고향찾어 가는길에 재애오라 만드리때 어떤소년이 또부역하러가는것을 만나 서로 이야기 하든끝에 부자간인것을알고 마조 안고 울다못해 손가락에 피를내어 부자상봉의 그림을그린것이 천년남은해 비바람에 아 지도남 어 오늘까지 화영암(畵影岩)이라 불리어진다니 그바위、그 그림이보고 십다.

안변 재남(?)부터(翰峙上)이 어디 ... 바라보는사이에안변(安邊)이다

移住同胞六百名

洪水로危險切迫

遼河大增水、上口子等水國化

農作被害만廿萬餘圓

【영구특신】 남만주요하(遼河)는 상류지방의 호우로인하야 점점 증수되어 위기가 각각으로 절박되고잇는데 이남로전에영구(營口)의 영사경찰과 조선인 민회에서 六일밤에 큰배이범선(帆船)七척을가지고 현지로 출동하엿다. 경비선요하환(遼河丸)은 七일아침에 다시 상류로 출항하야 상구자(上口子)외 五、六처의 조선농민六백명을 구조하려갓다한다. 그런데 조선농민이 입은손해만이 二十만원이상에 달하리라 한다.

포스트로機消息 【전보주이(?)】

【아라스카八일발연합】 七일샘볼흑스(?)발한 세계고속회항(世界高速回航)의 포스트기(機)는 제일목적인 아라스카의 주이에서 八인안삭하엿는데 포스트씨와 몽소종인노지아스씨는 말하되 샘볼로부터의 비행은 명시의비행과 달라서 사못평범 하엿다는것을 의기양양하 게말하엿다.

塔公園서密議던

强盜團逮捕

獅子庵事件에도關係

九일오후五시경에 경성종로서 강도 二명을 검거하엿다. 본적 安城郡二竹面汴梧里三一 前科四犯 劉東方(二三) 京城府東崇洞一〇七의一六 前科二犯 崔相夫(二五)으로 그들의 범행은 지난 四일오전三시경에 수원군안룡면 고색리(水原郡安龍面古索里)대성상회(大成商會)박규삼(朴圭三)의 점포에 침입하야 칼로 주인을 협박하고 현금 一백六十원을 강탈하엿다. 그들은 그동안 도망하야 경성에 잠입하야 다시금 범행을 공모하던중 체포된것으로 그들은 얼마전에 시흥군(始興郡)사자암(獅子庵)강도사건에도 관계가 잇는듯하다는데 취조의결과 여죄도 상당한 모양이라 한다.

酒稅가第一位!

昨年酒稅千五百萬圓臺突破

느는것 술뿐인가?

작년도의 세신수표(稅收表)에 나타난 수세수입(酒稅收入)은 조선세그수입의 중추인 지세(地稅)보다 더원신만하저서 천五백만원을 돌파하고 단연제一위를점령하엿다. 이같이 술이 잘팔렷다하야 조선주조협회(朝鮮酒造協會)에서는 一년十월에 경성에주세 천五백만원 돌파의 축하회(祝賀會)까지 열려고 준비하다고 한다.

珍奇한觀光團

南洋酋長이東京에

九일오전 남양(南洋)의 사이방으로부터 횡빈(橫濱)에 입항한일본우선 산성환(山城丸)으로 트락그도(島)의 그로니、로이(?)외 十九명으로된 남양제도 토인(南洋諸島土人)의 관광단(觀光團)이 일본에 왓다. 그들은 수장(酋長)과 자산가들로서 남양청 경무과(南洋廳警務課)의 영정보(永井)씨의 인솔하에 ×시 동경에 행하야 각처를 관광하고 내 二十一일귀국하리라 한다.

移住 ...

리가 끄러진사람、상자가 터진사 —— 一九소를 운전하던 운전수는 상당(?)... 서에 유치되어 취조를 받든중이다. 그런데 이사고로 번기동차는 조선 철도회사의 열차이며 이 ... 다.

貨物自動車와 衝突

오드빠이大破

昨夕、鍾路한복판의事故

運轉手는負傷入院

九일 오후五시반 경성종로 네거리 한복판 피一人이의 교통정리대앞에서는 트럭크와 오트바이가 충돌되어 오트바이는 전부파괴되고 동운전수도 현장에 졸도되어 대중잡을 일으키엇다. 인천경인화물(仁川京仁貨物)트럭 경기도 七二〇호는 동대문으로부터 종로네거리를 통하야 오던중 경성경편(京城慶便)과 중국제분회사(中國製粉會社) 오트바이 경기도 八八八호를 지내어 청량리(淸凉里)방면을 향하게되어 역시종로네거리에 도 착하자 진행하는 전차에 가리어 서로보지못하고 막아지내다가 별안간 충돌이된것이라하며 오트바 이운전수 이달용(李達用)(二五)이는 가슴과 수족을 중상하야 목하부근 덕제병원(德濟病院)에 입원 치료중이라고 한다.

暴風警報

八月九日午後八時三十分 仁川觀測所發表=風雨가强하다。低氣壓中心은 朝鮮南部를 通過하야 北進하며 黃海道에 暴風雨가잇다。全羅南北道、低氣壓이 黃海道南部에잇어 七四二粍를 示하고 東西東으로進行中이다.

그날그날
(陽)八月十日(土曜)
(陰)七月十二日(戊午)
日出 前五、四三 日入 後七、三三
月出 前四、〇五 月入 後〇、三一
【滿潮】
仁川 前〇、二〇 後〇、三〇
釜山 前四、〇〇 後五、一〇
鎭南浦 前四、四五 後四、五〇

寫眞은 天池全景

(東中에서)

차는 쉬지안코 어두운 밤을 뚫고 역사와 전설의 꿈나라、동해안(東海岸)으로、동해안으로 달린다.

오늘의天氣
비가오겟습니다

運動競技

米國選手團은 伯林大會에出場

反獨熱높아가므로

米올림픽委員會가聲明

【뉴욕發】 獨逸의 유대人 及케트릭敎徒排斥에對한 米國人의 憤慨는 한것높아서 結局明年獨逸의 올림픽에 米國團은 出場을 主張하는 만두사는說이 擡頭하여잇으며 米國勞働總同盟會長 꾸린와•그린氏까지가 七月二十八日에 獨逸團體의聲明을 發하엿다.

이런때에 世上이 어찌되엇든지올림픽에 出場하고싶은 選手들은 米國의올림픽委員會本部에 자주그눈치를 보고잇는바 同會秘書부비엔드氏는 다음과같은 聲明을發하엿다.

米國選手團은 反獨宣傳의 如何를 不拘하고 伯林에 出場한다。 九月初부터 日米戰 三十萬弗募集에 着手할것은 勿論이오。 米國內의 유대人으로부터의 寄附金은相當少額으로 주는으로 이方面은 對抗하지안코라도 選手와役員五百人의 一行은 派遣할기에 틀림없이보여줄것이다.

豫測不許하는 日米水上戰

【東京電話聯合】 米國水上選手一行은 九日午前九時半에下하는 途中名古屋에서 下車、約一時間 練習을하고 名古屋市長의 歡迎晩餐會에 臨한後 同夜大阪으로 向하야이 왓고 十一日부터 日本軍과最初의對抗競技를 行할터인데 昨八日神宮풀에서行한 三種目의 記錄會에서는 豫想外의大記錄을내어 實力을發揮하엿다。 即 二百에 마시온스選手는 日本新記錄의 日本記錄二分十三秒를 훨신깨트려 二分十二秒二의 記錄을지엇고 二百背泳에서는 드라이스• 兩選手가 淸川選手의 日本記錄二分卅五秒 八을깨트려二分卅三秒四을지엇다.

百米平泳에서는 과연 小池、葉室의記錄에 未及하엿다。 그러나 米選手는 最近好調로서 百米自由型에서 피스選手가 五十七秒四의記錄을 暫내엇다。 日米對戰은 文字대로 白熱戰을 演할것으로觀測은 과연어느편上에잇날지 조이 豫測을 許하지안는다.

湖南蹴球大會

優勝은珍島軍에

【海南】 湖南蹴球大會는 本報海南支局主催 朝鮮日報 海南支局 海南新興靑年會 後援으로 去三四兩日 午前九時부터 支局長千洪均氏開會辭로 海南公普校 運動場에서 開催하엿는데 大盛況裡에 參加八팀의 白熱戰으로 優勝은珍島軍에게歸하야 午後六時半 優勝旗及賞品授與後 終幕되엇다.

(審判金斗河、金南馨、千光均三氏交代)

【第一回戰】

木浦 0	(0—1 / 0—0)	1 海南B
北平 4	(1—0 / 4—0)	0 大興
黃山 2	(0—2 / 2—0)	4 海南A
珍島 2	(0—0 / 2—0)	0 長興

【準決勝戰】

北平 2	(0—0 / 2—0)	0 海南B
珍島 2	(2—0 / 0—1)	1 海南A

【決勝戰】

北平 2	(2—2 / 0—1)	3 珍島

▲決勝經過 北平强팀과 珍島强팀의 決戰戰은 四日午後三時三十五分 主審金斗河、線審千光均崔良碩三氏의 審判下에 北平軍 키어프로 開戰되엇다。 四千餘를 算하는 滿場觀衆 緊張裡에 白熱戰의結果 北平軍은 負傷選手가잇음에도 不拘하고 四十一分에 北平軍이 一點을 獲得하고 繼하여 五十二分에 또一點을獲得한後 一時的 氣勢를일흔 珍島軍 다시 元氣를恢復하여 熱戰 四時七分에 珍島軍이 一點을得하고 또十五分에 一點을得하야 前半戰은同點 後半戰에들어 五十分에 珍島軍이 一點을得한後 北平軍의 熱戰活躍도 舍대없이 惜敗하고 珍島軍이決勝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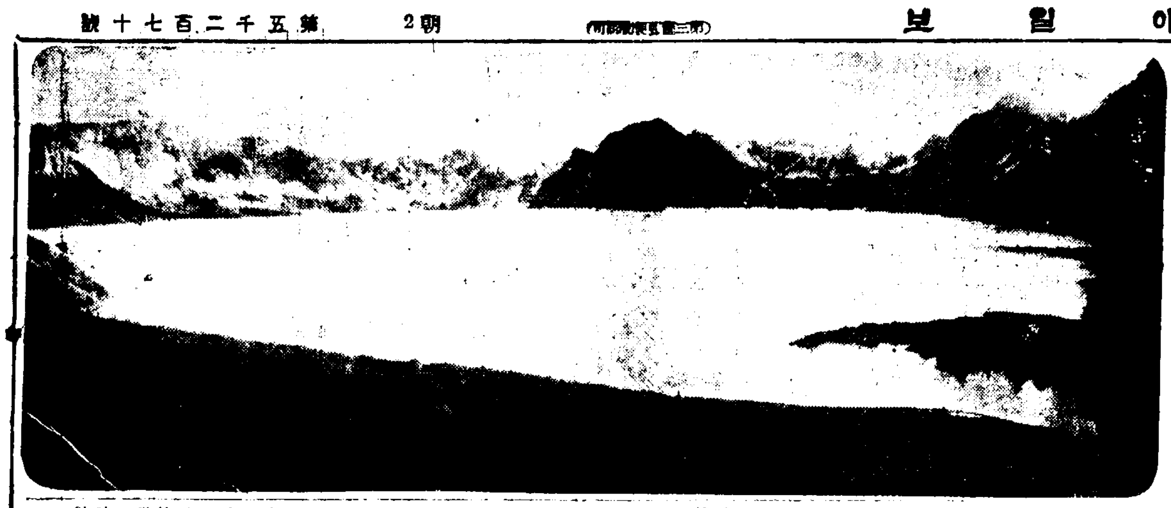
都市對抗野球準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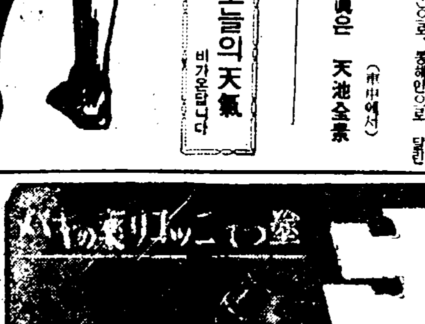
川崎1 大連0

【電通東京電話】 都市對抗野球準決勝 川崎對大連戰은 九日午後零時五十五分부터 神宮球場 에서 森田(球)、濱田、鷹村(壘)三氏審判 川崎先攻으로 開始、大接戰의後에 一對零으로 川崎快勝 (開戰二時四十五分)

川崎投浦=(川)若林一桂谷(大)五十嵐一字佐美

川	100000000=1
大	000000000=0





효력절대!
마구닌錠
세계적 회충약
마구닌제리
小兒의 蒼白한 얼굴은 大概 蛔虫 寄生의 標識
元氣가업서보이고먹어도살이오르지안코胃腸이약하여神經質이여럿이 蛔虫이寄生한것이만흔데 이들에는 마구닌이 多少의驅蟲劑보다優秀하여 副作用이업는 効力도 오나산도닌보다 마구닌을써보십시오
마구닌錠 三十錠 七五錢 一百錠 二十五錢
마주닌 二〇錢 五〇錢
제리 一錢、二錢
十錢마구닌錠 (大人一日量)
京城府本町 藥種商友吉京城支店
MK—57

地方論壇

德池江堤防工事場人夫轢死問題

高原 一記者

얼마前 高原德池江 堤防工事場에 使役人夫가 工事用 「도록꼬」에 被轢되어 多量出血끝에 드디어 絶命된 慘死事件이 생겻다.

이慘事者는 原籍을 咸南端川郡에두고 各地로 轉轉하든李興福이라고 일홈하는 勞働者로서그는 本工事場에서 日當勞働代價一金四十五錢也의 條件밑에서 出役하야 被轢當日賃金이 손에쥐어지기도前에 그만無慘히도 世上을永別하고 말엇다 한다.

이것으로만도 우리는 德原의情景을 ... 하거늘 하물며 그죽엄이 工事當局者의 無誠意, 無誠...

清津府農漁民의 赤字 二百四十萬圓

해마다 갈스록 느는다 뿐뿐

漁民의 將來生活이 注目

【청진】서쪽으로 수성평야를끼고 동남에 바다를 가진 청진부(淸津府)내에 산재한 어농가의 부채를조사한바에의하면 그적자(赤字)는 실로 놀랠일이다. 부내거주 농가만이 二백七十호에 적자가三만여원이오 어가(漁家)四백七十호에 적자가 二백四十三만원에달한다. 이수자는 八월현재조사인데 과거수년래 어획부진으로 비명을올리고오다가 작년도 풍어에 겨우 탈채(脫債)한것이어 이러한 수자를 내고잇다 ...

定州音樂演奏

오는十五일개최

【정주】정주유학생(定州留學生)회에서는 오는十五일 오후八시에 정주극장에서 음악연주회를개최하리라는데 회원이외에 홍종숙(洪鍾淑) 최석사 경성, 평양등지의 一류음악가들의 찬조출연도잇어 성황을예기한다고한다.

自動車會社가 夜學을設置

【청진】청진부(淸津府)에본사를두고 전함북一대에 선로를가진 함북자동차회사(咸北自動車會社)에서는 사장 근등(近藤)씨의발의로 사내에다가 함북야학회를 설립하고 사내 종업원중에서 청년자로서 정신향상에 백여명에 교수중이라한다.

工場地帶의 煤煙으로 附近住民은 大困難

매연과 분탄으로 위생상 큰해

平壤船橋里의 一問題

【평양】평양의 공장지대(工場地帶)로서 상당히과세를 올리는 선교리(船橋里)의 ... 최근에와서는 인구도상당히 늘어 ... 매연방지에관하야 ...

詐欺輩무서워 全財產信託

아들어머니로 치서은 현사

흙이머니들渡世術

【구장】만흔 재산을 가지고 또 아들이 미성년인 홀어머니들이 재산을 싸고 도는 친속과 사기배들의 감언이설에 속고 협잡배에게 유린되는 미성년 아들의 앞날을 우려하여 이리 뜻기우고 저리 뜻기우든 남어지에 세사만 외 홀어머니가 재산을 지키고 아들의 장래를 위하고저 같은 보조를 취하야 사실을 근자 신탁회사(群山信託會社)신탁장부에서 찾어볼수가 잇다.

◇전주읍 청수정(全州邑淸水町)에 유一한 부자 임씨(林氏)(二五)는 二년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三천여석의 토지를 상속하엿는데 아들 박모(朴某)(○)는 ...

◇또 한 홀어머니는 전주읍 대화정(全州邑大和町)반석 부자 홍씨(洪氏)(四○)로 ... 는 아들 셋을 ... 四, 五년을 두고 가사를 돌보아 순다는 ... 산을 ... 뜻기어 남은 재산인 八백석토지를 군산신탁회사에 신탁수속중이다.

◇또 이사람의 홀어머니는 ...

今日의 寫眞 上 珍島蹴球에 優勝한 珍島軍 中 淸津音樂會光景 下 群山支局主催蹴球大會 優勝旗授與

盛漁期에 鰺魚가 不獲

統營漁民에大打擊

【통영】통영(統營)근해를 중심으로 어업은 봉영 이 ... 어떠서는 안될 장어시 되어 잇는데 금년도에 ... 생이가 ... 구하고 도무지 잡히지 안어 일반 성정이 어이자들은 사알문제라고 하야 매우 우려를 하고 잇다고 한다.

佛敎講演盛況

【김천】경북김천(金泉)군에서는 대본산 김천 대본산금룡사(大本山金龍寺)주최와 김천 불교청년회(金泉佛敎靑年會)후원으로 현재 동경입정대학(立正大學)강사로잇는 김동선(金東宣)씨를 초빙하야 지난八일 오후八시부터 김천극장에서 불교강연회를 개최하엿는데 대성황을 이루엇다고한다.

歸鄕音樂盛況

지난六일청진서

【청진】청진부(淸津府)에 잇는 동경(東京)과서울에가서 악업에 종사하는 청년, 내외생 二十여명은 금번 고향에 돌아와서 정든부형들을 한자리에서 반나자는 의미하에서 지난六일밤 공락관에서 ...

生命이危篤

동무救하려다

【비현】지난 七일 오후九시에 평북 의주군 비현면 체마동(義州郡枇峴面體馬洞)三九三번지 변성녀(邊姓女)(二○)는 그부근 못(池)에서 목욕을 하려고 동무들과 가서 나아가 못에 들어가라 한때에 1만 미끄러저 ... 거이가 부잡하도 빠저 ... 하고 가치갓든 동무하사람이 ... 구하려다가 빠져 생명까지 위험하엿을때에 마침 부근사람에게 구원을 받아 생명은 건젓으나 방금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沿岸貿易埠頭 建設起債認可

【청진】청진부(淸津府)에서는 오래동안 현안중이든 연안무역부두 건설비기채(沿岸貿易埠頭建設起債)六만五천원을 당국에 신청하엿든바 지난 五일부터 상부에서 인가지령이 되엿으므로 수일중에 곳 시행에 착수하게되리라고 한다.

滿洲國鑛業法

施行期日은勅令으로公布

第七十七條 鑛業에關하야 左의各號의 一에該當할境遇에는 鑛業警察에關하야 實業部大臣及鑛業監督署長은 命令의 定한바에依하야 必要한命令을 發할수잇다

第六章 鑛業警察及監督

一、建物及工作物의保安

二、危害의 豫防 其他公益의保護

第七十八條 鑛業警察上必要가 有하다고認定될때에는 實業部大臣은 鑛業權者에對하야 豫防의 施設又는作業全部 或은 一部의 停止를命할것을 得할

第七十九條 鑛業監督署長이 前項의 規定에依하야 命令을 發한때에는 ...

第八十條 實業部大臣은鑛業權者로하야 ...

第八十一條 鑛業權者는 命令의 定하는바에 從하야 施業案을作成하고 鑛業監督署長의 認可를 受할것 ...

第八十二條 ...

第八十三條 鑛業權者는 命令의 定하는바에 從하야 坑內實測圖及...

第八十四條 鑛業權者는 ...

第八十五條 實業部大臣又는 鑛業監督署長은 鑛業權者에게 對하야 鑛業에關한 報告를 求할을得함

第八十六條 ...

第七章 裁決 訴願及訴訟

第八十七條 鑛業에 關한 出願의 許可或은 拒否 ...

第八十八條 ...

第八十九條 土地의 使用或은 收用에 ...

第九十條 ...

宜川스포-츠講演會

◇日時 八月十日(土曜)午後八時半
◇場所 宜川邑宜川會館
◇演士 東亞日報社 李吉用
◇後援 東亞日報社宜川支局

第一回全朝鮮個人庭球大會

◇日時 八月十八日(雨天順延)
◇場所 羅州幼稚園코-트(靑年會館)
◇參加金 一組一圓(晝食提供)
◇申請場所 東亞日報社羅州支局
◇主催 羅州留學生親睦會
◇後援 朝鮮中央, 朝鮮, 東亞羅州支局

全濟州蹴球大會

◇日時 八月十一日
◇場所 濟州邑光陽球場
◇主催 濟州運動俱樂部
◇後援 東亞,朝鮮,中央三支局

第二回中朝鮮個人庭球大會

◇時日 八月十一日(雨天順延)
◇場所 寧越二集會코-트
◇申請金 每組一圓
◇申請場所 寧越佛敎靑年會
◇主催 寧越佛敎靑年會
◇後援 東亞日報社寧越支局

海西蹴球大會

◇時日 八月十五日(雨天順延)
◇場所 寧邊郡末力市運動場
◇參加金 每팀壹圓(申請과同時에)
◇申請期日 八月十三日
◇主催 末力運動俱樂部
◇後援 東亞日報社末力分局 長壽公普校

第五回西朝鮮庭球大會

◇日時 八月十八日
◇場所 龍岡浦公普校코-트
◇參加金 一團三組金貳圓(中食提供)
◇主催 龍岡浦公普校同窓會
◇申請場所 龍岡浦公普校同窓會
◇後援 東亞,朝鮮日報龍岡浦支局

第四回西朝鮮個人庭球大會

◇日時 八月十日(雨天順延)
◇場所 方峴公普校學校코-트
◇參加金 每組五拾錢
◇申請期日 八月九日
◇主催 方峴靑年會
◇後援 東亞,朝鮮支局

第二回全朝鮮個人庭球大會

◇日時 八月十一日(雨天順延)
◇場所 長湍庭球俱樂部코-트
◇參加金 一組五十錢也
◇申請場所 長湍庭球俱樂部
◇申請期日 八月十日午後四時까지
◇主催 長湍庭球俱樂部
◇後援 東亞日報長湍支局

第一回南朝鮮個人庭球大會

◇日時 八月十一日午前九時
◇場所 廣川驛코-트
◇參加金 一組金一圓
◇申請場所 東亞日報社廣川支局
◇主催 廣川體育會庭球部
◇後援 東亞日報社廣川支局

第五回五郡聯合個人庭球大會

◇日時 八月十一日(雨天順延)
◇場所 靈岩郡廳코-트
◇申請期日 八月十日
◇主催 靈岩體育協會
◇後援 東亞日報靈岩支局

第二回野球大會

◇日時 八月十一日
◇場所 橫城公普球場
◇申請期日 八月八日까지
◇參加金 貳圓
◇主催 橫城學友會
◇後援 東亞日報社橫城支局

眉愁 (86)

尹白南 作 李靑田 畵

七、희생 (十三)

수사좋아를 맛나지못하야 그립고 그리운 남편을 대하는 기회를 이제야 얻엇다.

홍도는 가슴이 두근거리엇다. 그러나 남편을 대하는 이몸이 예전과 같은몸이 아닌것을 생각하매 홍분되엇던 가슴에 한 자배의 냉수를 끼언는듯하여 기운이 탁 까부러진다.

「자아 그럽 장군의 허락이 나리섯으니 나하구 나가십시다」

하며 장영은 홍도를 재촉한다.

홍도는 까부러지는 기운을 스스로 채죽질하며 마음을 도사리어먹엇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약한마음을 꾸지젓다.

「남편을 구하려는 거륵한 희생을 하엿거던 하누님이 나려다 보시거늘 무어 부끄러워할바 잇으랴」

이러한 생각이 엇다.

곧끝내 이 더럽히어진몸을 속이고 향후의 복잇는 동서생활을 바라는것이라면 모르거니와 남편을 완전히 살려보내고는 이몸은 죽는단밖에 더 어떠케하라고하는것인가.

홍도는 마치 자기를 공격하는자에게 반박을 하는듯이 자기의 가슴에 타일럿다.

홍도는 장영의뒤를 따라 밖으로 나갓다.

장영은 별다른 뜻을품고 홍도에게 유난히 친절하게 구럿다. 긴복도를 거러오면서도 장영은 나즈막한 소리로 이런말을하엿다.

「사실 우리장군처럼 무도한 어른은 드물지오 부인의남편을 ... 시 매섭하라는것도 장군은 죽여도 조타는것이엇지마는 내가 곁에서 그럴수잇느냐고 수차간곡히 말햇길래 그만햇지오」

홍도는 속으로

「그만햇다는것이 그러케 해」

하고 자기변명을 생색을 냇다.

하고 말할수없는 반항심이 어러낫지마는 지금 그리하는것이 결코 이롭지 못한것을 알기때문에 그저 건성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여두엇다.

「그럽은요」

「옥으로 가서 보시랍니까」

「뭘말이요 그 썩는냄새가 나는 옥에가서 무슨이야기가 되겟소 내 따로 방하나를 치어드려고 그리고 정생을 더려내오러다 그러나 오래는안됩니다」

「네 잠깐이라도 좃습니다」

「그럽 이리로 가시지오」

하고 오든길로 다시 도라서서 잡깐 거러가다가 웃쪽 서서 무엇을 생각하드니마는 다시 도라서며

「내방으로 가십시다 그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하고 자기방으로 홍도를 끌고 들어갓다.

그리고 요령을 흔들어 사령하나를 부르더니 영원장군의 영을 전하엿다 사령은

「그러면 옥졸더러 정가하와 곳 이리로 더려오겟읍니다」

「빨리 허라고 그래라」

「수갑은 어찌하랍쇼」

장영은 잠깐 주저주저하다가

「그대로」

하고 대답을하여보낸다.

「기왕 호의를 가지섯거던 잠깐이라도 수갑을 끌러주어서 편허게 맛나뵈어주시면 조치안읍니까」

「글세 난 그러케도 생각해보앗소마는 다시 생각해보니 정생을 더려내다가 만나라는것도아님것을 내 자의로 그러케햇는데 만일에 수갑까지 ...

社告

任茂朱支局長 崔萬業

今般右와如히 茂朱支局을 設置하엿삽기 玆에 謹告하나이다

昭和十年八月九日

東亞日報社

謹告

任記者 李錫儀 李範烈

任集金員 韓祺基

昭和十年八月九日

東亞日報社 茂朱支局

效能 上氣를내리고便通을順케하며 梅毒淋疾諸毒을除이됨

효능으로 팔리는

效能で賣れる 七ふく ひえぐすり

大阪高津表門筋 本家七ふくや伊藤長兵衛 振替大阪九七三一電南二七九

精神病科 腦脊髓神經病專門 京城府外 入院室完備 原病院 電光2643

岩崎大海堂 セメンス菓子

朝鮮劇場 (電光一二八一番) 朝鮮名篇 銀河의흐르는情熱 原作脚色監督 安鍾和 撮影 李明雨 出演 沈影 朴齊行 李錦龍 李慶善 朝鮮初有發聲映畵 春香傳 乞期待

母の戀文 小林十九二 酒井米子 坂本武 飯田蝶子 野村浩將 監督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八月七日부터五日間每日三回 正午十二時 三時半 八時 特別大衆料金 階上大人三十錢 階下大人二十錢

크레오파추라 滿艦飾의豪奢! 巨匠세실·B·데밀氏不世出의力作品 ◇朝鮮名篇 幸運 ◇新人映畵 美人의인사

金 銀 白金 株式會社 石福商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出張所 平壤府 旭町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入院隨意 診察 安國洞네거리 電光二一三一

佐光産婦人科院 佐光 弥三郎

轟島遊園地 大擴張 納涼式花形車運轉 諸設備 京城軌道株式會社 東大門에서汽動車往復二十錢 電光 二三九六

어것一罐으로— 애기네의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십시다

시캇로루 데몬 무진와띠땀

짐을부리고한대퓌십시오!

더울적의無理가第一나쁩니다

자여기에アイフ도잇읍니다

천천히쉬시고元氣를내서가시지오

夏節은胃腸의非常時외다!

連日炎熱에는健康者라도胃腸障害를일으키기쉽습니다。 하물며조금이라도胃腸에疾病이잇는사람은食慾不振하고、消化吸收는衰하여、營養의不足으로甚한衰弱에빠집니다。게다가冷物과不消化의果物때문에배탈이나서泄瀉를하기、胃腸가타락이되어서一層痼疾을惡化케합니다。 그러고조고마한放心으로赤痢와腸窒扶斯等의무서운傳染病에侵襲을當하는일도적지안습니다。 그러하야이胃腸의非常時 克服함에도、于先胃腸을强化하야營養을높이고體力을增進하야더위에지지아니할準備가緊要합니다。 거기에는아무리라도病變部의治療가第一이니、患部를除去치아니하고食慾의振起나營養의增進은바랄수없습니다。 따라서 斷然히消化劑와營養劑에依賴함은、機能을益益弱하게할뿐으로病患治療의正道는아닙니다。 胃腸疾患의治療、特히慢性胃腸病에는治療藥아이후를服用하십시오! 아이후의特異한成分은당신의●食慾不進하고가슴답답하며、嘔逆나고더부룩하며●늘下痢軟便으로、便에는粘液、血液、膿汁을混하고、●배가脹하고부글거리며放屁만코下腹痛나며●滋養物을먹어도살로가지안코身體衰弱하며、●元氣가衰하고顔色이나쁘며、神經이過敏하야短氣해지고●숨바不消化物은조금만먹어도泄瀉나고아픈等諸症狀을好轉하야、明朗한健康으로引導합니다。

全國到處有名藥店에잇소

藥價

胃와腸의兩病에는アイフ (粉末)

三服入 二十錢　十七日分 三圓
四日分 七十五錢　四十四日分 七圓
八日分 一圓五十錢　特製一十一日分 五圓

胃病專門에는健胃アイフ (錠劑)

七十五錠入 五十錢　三百四十錠入 二圓
百六十錠入 一圓　千錠入 五圓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發賣本舖 **順和商會**
振替大阪三三四四番 電話(東)五〇〇〇・五〇〇二・五〇〇三番

東京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番館 振替東京六二八八番 電話小石川(八五)一〇一〇番
大連 大連市山縣通一丁目 振替大連五七六五番 電話七六〇八番

慢性胃腸病에는 アイフ
아이후